

차별화된 PB 서비스 강화

행복파트너 (Branch PB) 발대식

KEB하나은행은 지난 9월 16일 오전 본점 4층 강당에서 함영주 은행장과 행복파트너(Branch PB)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파트너(Branch PB)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PB서비스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PB평가 KEB하나은행의 강점을 살리고, 영업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직원의 PB화를 추진하고, 그 첫 단계로 ‘행복파트너’ 1,706명을 선발해 854개 모든 지점에 배치한 것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모든 지점에서 PB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고객과 장기거래 고객들은 영업점마다 2명씩 배치된 ‘행복파트너(Branch PB)’들을 통하여 차별화된 PB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가 필요한 고객은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행복파트너(Branch PB)’를 통해 자산관리, 연금플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 부동산, 법률, 유언신탁 등의 자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복파트너(Branch PB)’들도 기존 PB전용 자산

관리시스템인 HPBS(PB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 고객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행복파트너(Branch PB)’들의 자산관리 및 마케팅에 대한 현장 밀착연수 지원을 위해 5개조 총 10명의 PB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일즈코칭 TFT’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행복파트너(Branch PB)’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행복 파트너 임명장 수여, 선언문 선언, 핸드 프린팅,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행복 파트너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객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고객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PB들의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축적된 PB서비스의 저변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파트너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



KEB하나은행은 지난 9월 16일 오전 본점 4층 강당에서 ‘행복파트너(Branch PB)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PB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행복파트너(Branch PB)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글 전유선 기자 사진 김동욱 기자

